

글로벌 톱10 기업의 국가별 비교와 경제정책 연구

김 종 권 *

1. 서론

국내 기업들은 국내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가 바뀌고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는 많은 국내기업들이 내수위축, 노사분규, 정부규제 등과 같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도태당할 우려가 농후하다. 글로벌 톱 10 기업들은 우월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불황 속에서 더욱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시점과 비교할 때, 2003년 들어 글로벌 500대 기업 수가 증가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 8개 국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에서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1997년 시점과 2003년을 비교하여 볼 때,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글로벌 500대 기업수가 증가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2003년 기준으로 미국 192개(+30개), 프랑스 40개(+5개), 캐나다 14개(+8개), 네덜란드 11개(+2개), 호주 6개(+1개), 중국 11개(+8개), 스웨덴 6개(+2개), 핀란드 3개(+2개)이다.

반면에 글로벌 500대 기업수의 증가가 정체된 국가는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4개 국가이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국 13개, 스페인 5개, 노르웨이 2개, 대만 1개이다. 한국의 경우, 대상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한편, 글로벌 500대 기업수가 감소한 국가는 조사 대상 20개 국가 중에서 일본, 독일, 영국 등 8개 국가이다. 일본 88개(-38개), 독일 35개(-6개), 영국 34개(-8개), 스위스 11개(-3개), 이탈리아 9개(-4개), 벨지움 3개(-1개), 브라질 4개(-1개), 홍콩 0 (-2개)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심화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500대 기업들의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우위에 놓여 있는 시장점유율 확보 등으로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홍대학 경상정보계열 전임강사

<표 1. 국가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수 및 1997년 이후 변화추이>

순위	국가명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7년
1	미국	192	197	185	179	162
2	일본	88	88	104	107	126
3	프랑스	40	37	37	37	35
4	독일	35	35	34	37	41
5	영국	34	33	33	38	42
6	캐나다	14	16	15	12	6
7	한국	13	12	11	12	13
8	중국	11	11	12	10	3
9	스위스	11	11	11	11	14
10	네덜란드	11	9	9	8	9
11	이탈리아	9	8	8	10	13
12	호주	6	6	7	7	5
13	스웨덴	6	5	5	4	4
14	스페인	5	5	6	5	5
15	브라질	4	4	3	3	5
16	벨지움	3	3	3	3	4
17	핀란드	3	2	2	2	1
17	러시아	3	2	2	2	1
19	노르웨이	2	2	2	2	2
20	멕시코	2	2	2	2	1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03, 2002, 2001, 2000, 1997

< 표 2. 2003년도 글로벌 한국대기업 >

순위	회사명	Global 500 순위	매출액
1	삼성전자(주)	59	476
2	현대자동차	94	384
3	(주)SK	108	346
4	(주)삼성물산	115	329
5	LG상사(주)	205	213
6	삼성생명(주)	236	195
7	LG전자	261	178
8	SK글로벌	275	171
9	한국전력(주)	279	170
10	국민은행	330	150
11	(주)현대종합상사	345	143
12	KT	386	131
13	포스코(주)	443	114

(단위 : 억달러)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03

2. 1997년 이후의 업종별 톱10 기업의 국가별 비교

포춘은 50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여기서는 국가별로 톱 10 내에 진입한 기업들의 국가별 비교이다.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에서 증가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 7개국이다.(<표 3> 참조)

미국 142개(+34개), 영국 26개(+3개), 프랑스 31개(+2개), 캐나다 4개(+3개), 한국 7개(+2개), 중국 2개(+2개), 핀란드 2개(+1개)이다. 한국의 업종별 톱10 기업의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업종별 톱 10 기업이 감소한 국가는 5개 국가이다. 일본 57개(-21개), 독일 24개(-1개), 호주 0 (-1개), 노르웨이 1개(-1개), 홍콩 0 (-1개)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차세대 유망산업이며, 고용창출 효과 등이 뛰어난 첨단 및 기간산업 업종들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첨단 및 기간산업에 속하는 제조업부문은 3개 업종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4> 참조)

전자, 전기장비 부문 (삼성전자 5위), 철강·금속 부문 (포스코 7위), 전력 부문 (한국전력 7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시행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3개 업종에서 순이익이 동종업종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과감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규제 완화와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과 인구나 국가면적 등에서 유사하지만, 91년도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룩한 이태리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자동차 및 통신 부문에서 톱 10 내에 진입하고 있

다.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에서 FIAT가 8위, 통신부문에서 OLIVETTI가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국가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업종수 및 1997년 이후 변화추이>

순위	국가명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7년
1	미국	142	147	141	136	108
2	일본	57	55	67	71	78
3	프랑스	31	25	32	28	29
4	영국	26	26	22	27	23
5	독일	24	24	22	24	25
6	네덜란드	9	9	9	7	9
7	스위스	8	8	8	6	8
8	한국	7	7	7	3	5
9	이탈리아	6	6	6	7	6
10	캐나다	4	4	2	3	1
11	중국	2	3	2	1	0
12	핀란드	2	2	1	1	1
13	스웨덴	1	2	2	1	1
14	러시아	1	1	2	2	1
15	멕시코	1	1	1	1	1
16	노르웨이	1	1	1	0	2
17	스페인	1	1	1	0	1
18	벨지움	1	1	0	1	1
19	호주	0	2	1	1	1
20	브라질	0	0	0	0	0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03, 2002, 2001, 2000, 1997

< 표 4. 한국의 업종별 톱10 기업의 현황 >

< 전자, 전기장비 부문 >			
순위	기업명	2002년도 수익	순이익(순위)
5	삼성전자(주)	47,606	5,636(1)
< 보험 : 생명, 건강 부문 >			
순위	기업명	2002년도 수익	순이익(순위)
10	삼성생명(주)	19,536	792(7)
< 철강·금속 부문 >			
순위	기업명	2002년도 수익	순이익(순위)
7	포스코(주)	11,472	872(2)
< 석유정제 부문 >			
순위	기업명	2002년도 수익	순이익(순위)
10	(주)SK	34,683	-1,916(26)
< 종합상사 부문 >			
순위	기업명	2002년도 수익	순이익(순위)
8	(주)삼성물산	32,960	59(11)
9	LG상사(주)	21,394	76(10)
< 전력 부문 >			
순위	기업명	2002년도 수익	순이익(순위)
7	한국전력(주)	17,075	2,436(2)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03

3. 글로벌 500 기업의 각국 GDP대비 국가경제기여도

<표 5>는 조사대상 20개 국가의 글로벌 500 기업의 GDP대비 경제기여도이다. 2003년도 기준으로 국가경제기여도(매출액 / GDP)는 스위스 (119.84%), 네덜란드 (80.48%), 프랑스 (77.40%), 일본 (76.91%), 한국 (63.09%)의 順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개국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 즉,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긴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의 매출액증가율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에서 3위(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핀란드 27.42%, 노르웨이 17.73%, 한국 11.23%이다.

한편, 인구나 국가면적 등에서 유사하지만, 확고한 선진국에 대열에 합류한 이태리, 노르웨이의 경우 각각 6.01%, 17.73%로 매출액증가율이 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위주의 매출증가는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유일한 대안이다.

세계적인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은 글로벌 기업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라 전업종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500대 기업들은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들 글로벌 500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제품 창출, 핵심 인재 확보, 품질 개선, 가격과파 등의 유리함으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 표 5.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각국 GDP대비 국가경제 기여도 >

(단위 : %)

순위	국가명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	미국	-7.83	6.94	17.59	32.03
2	일본	0.66	-16.26	0.12	-11.65
3	독일	0.38	2.90	-3.37	15.84
4	영국	5.02	2.62	9.81	30.86
5	프랑스	10.25	-1.02	9.14	-0.94
6	캐나다	-15.72	-2.65	48.64	102.66
7	스위스	-0.90	2.77	7.56	-12.43
8	이탈리아	6.01	-0.33	-4.02	-8.56
9	한국	11.23	-3.09	15.35	-25.97
10	네덜란드	7.91	7.86	19.62	34.07
11	호주	-2.19	-15.98	5.18	55.20
12	스페인	-7.99	-8.75	38.41	36.08
13	중국	-10.20	-4.28	36.40	296.02
14	스웨덴	4.02	-3.21	12.40	10.37
15	핀란드	27.42	-0.18	23.64	183.22
16	벨지움	-3.06	13.92	6.55	24.70
17	브라질	6.94	14.20	8.67	-35.23
18	노르웨이	17.73	4.39	33.43	4.51
19	대만	-41.57	-	-	0.90
20	홍콩	-	-	-	-

주 1 : 국가경제 기여도 = 매출액 / GDP

2 : 2003년 GDP는 2002년과 동일한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2003년 및 2002년 이태리 GDP는 2001년과 동일한 수치임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03, 2002, 2001, 2000, 1997 및 Datastream

<표 6.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각 국별 매출액 동향 >

(단위 : %)

순위	국가명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7년
1	미국	51.94	59.91	59.35	53.30	42.62
2	일본	76.91	74.38	65.31	51.59	61.96
3	독일	61.13	64.68	55.75	56.77	49.79
4	영국	58.54	59.93	57.50	53.74	44.02
5	프랑스	77.40	76.30	69.68	63.49	66.23
6	캐나다	24.96	30.12	33.63	24.19	11.56
7	스위스	119.84	134.62	121.72	111.61	130.43
8	이탈리아	24.55	23.50	21.42	22.05	24.70
9	한국	63.09	58.55	68.73	76.11	68.54
10	네덜란드	80.48	84.16	72.68	61.58	47.88
11	호주	20.74	22.39	25.72	30.11	12.93
12	스페인	19.01	24.06	24.57	18.20	14.00
13	중국	18.91	24.12	27.46	21.09	5.61
14	스웨덴	35.44	34.15	34.92	31.43	28.59
15	핀란드	38.73	33.36	31.23	25.14	9.34
16	벨지움	18.57	22.03	21.33	20.95	17.26
17	브라질	11.93	11.16	10.76	10.79	21.06
18	노르웨이	26.57	25.92	26.23	21.03	19.18
19	대만	4.64	7.23	-	3.71	3.38
20	홍콩	-	-	-	-	-

주 : 2000년도의 증가율은 1997년 대비임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03, 2002, 2001, 2000, 1997

4. 결 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심화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500대 기업들의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우위에 놓여 있는 시장점유율 확보 등으로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20개 국가의 글로벌 500 기업의 GDP대비 경제기여도를 볼 때, 한국은 5위를 차지

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 즉,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긴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증가율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에서 3위(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위주의 매출증가는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유일한 대안이다. 세계적인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은 글로벌 기업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 기업들의 실적 약화에 따라 전업종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500대 기업들은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들 글로벌 500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제품 창출, 핵심 인재 확보, 품질 개선, 가격파괴 등의 유리함으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차세대 유망산업이며, 고용창출 효과 등이 뛰어난 첨단 및 기간산업 업종의 육성이 필요하다. 첨단 및 기간산업에 속하는 제조업부문은 3개 업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 전기장비 부문(삼성전자 5위), 철강·금속 부문(포스코 7위), 전력 부문(한국전력 7위)이다.

그동안 시행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3개 업종에서 순이익이 동종업종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과감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규제 완화와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과 인구와 국가면적 등에서 유사하지만, 91년도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룩한 이태리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자동차 및 통신 부문에서 톱 10 내에 진입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에서 FIAT가 8위, 통신부문에서 OLIVETTI가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태리와 같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다.

법인세 인하, 수도권입지 규제 완화, 규제일몰제 도입,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추진, 기존 성장억제중심의 대기업정책 전환 등이다.

「기존성장억제중심의 대기업정책 전환」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즉,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500의 기업들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또한, 브랜드(Brand) 효과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뛰어나고, 국가성장을 위해서는 당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이 먼저 육성되고, 파급효과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 '분배'보다는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5. 참고문헌

- [1] Breeden, D.T., "Intertemporal asset pricing model with stochastic consumption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 1979.
- [2] Cochrane, J.H., "A Cross-Sectional Test of A Production-Based Asset Pricing Model", *NBER working paper* No.4025, 1992.
- [3] Cochrane, J.H., "A Cross-Sectional Test of an Investment-Based Asset Pricing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4, no. 3, 1996.
- [4] Fortune, 「Global 500」, 2003, 2002, 2001, 2000, 1997
- [5] Hansen, L.P., "Large sample properties of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Econometrica* 50, 7 1982.
- [6] Nickell, S.J., *The investment decisions of firms*, Oxford university press, 1978.